

| Bi-Weekly |

신영ESG

“ 드디어 ESG 공시 로드맵 확정...이제부터 real - ESG 시대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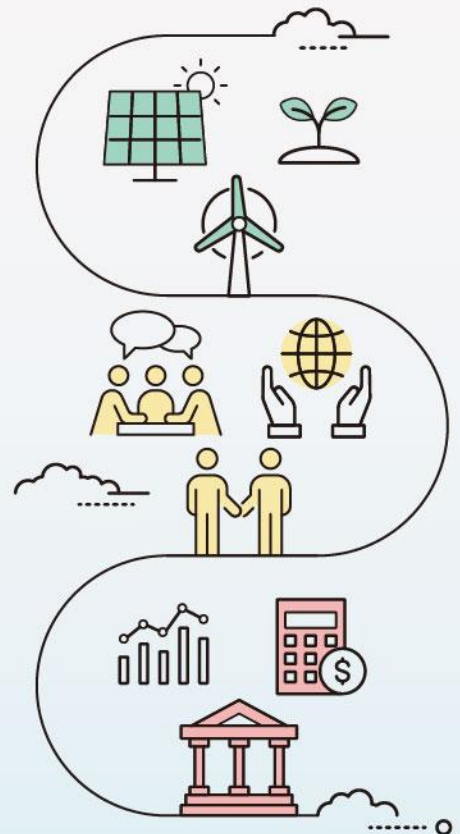
ESG 탐방 노트

삼성중공업

ESG ETF 따라잡기

iShares Energy Storage & Materials ETF
(IBAT)

ESG News Clipping



드디어 ESG 공시 로드맵 확정...이제부터 real - ESG 시대

ESG 공시 로드맵 확정, 법정 공시로 시작

정부 ESG 공시 로드맵 확정: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 이후 단계적 확대

정부와 여당은 8일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함. 2023년 3분기 발표예정으로 알려졌던 ESG 공시 로드맵이 3년 만에 최종 확정되어 발표된 것임.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끝에 당정 협의로 최종 발표된 것임. 당정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국가적 과제인 녹색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공시 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부상하고, 특히 기후를 비롯한 ESG는 더 이상 기업 윤리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함.

표 1. 국내 ESG 공시 제도화 방안 - ESG 공시 로드맵

ESG 공시 로드맵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아끌어나가기”로 전략 재설정 > 글로벌 기관투자자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적 공시로드맵 설계 > 기업의 자질없는 공시준비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가동	
공시시기 및 대상	-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 '29년 5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공시 의무화 - '28~'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원까지 확대 검토 ※ 다만, 연결기준 자산&매출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 첫해에 한해 면제
공시채널 및 면책	-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 예측, 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초기 3년 한시 면책 병행
제3자 인증	-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 세부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스코프3 시행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 후 '31년부터 공시 시작(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해외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내 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9년 5조 원으로 확대 이후,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하여 2030년 2조 원까지 추가 확대 검토 예정

먼저 시기와 대상을 살펴보면 당정은 2028년(FY2027)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여, 2029년 5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하여 2030년 2조 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힘. 연결공시의 제도적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적용 대상 기업 수는 2028년에는 291개사, 2029년에는 3,171개사에 이를 예정

2023년 최초 알려졌던 안(자산 2조원 이상부터 의무화하여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단계적으로 확대 등)에 비하면 완화된 것이지만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 확대)에 비해서는 강화되었음. 금번 최종안에 따르면, 공시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2028년에는 291개사, 2029년에는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공시 채널은 자본시장법상 사업 보고서 공시로 시작 → 법정 공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3년간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

공시 채널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시작하며, 이를 위해 당정은 연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임. 법정 공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시책임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도입 초기 3년간은,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 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할 예정임. 그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특성을 고려한 면책제도(Safe harbor)가 적용될 예정임. 미래 리스크요인에 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관련한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 배상 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힘.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시 2030년부터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할 예정

또한 기존 초안과 달리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시 2030년부터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할 예정임. 다만 국내외적으로 인증 관련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 의무화 2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정부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인증범위·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 등은 구체화할 예정임.

Scope3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특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Scope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하는 초안대로 확정됨. Scope3 공시에 대비하여 기후부는 주요 수출 1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Scope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임. 또한, 협력사로부터 직접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 2차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가 높은 전과정목록데이터(LCI)를 2028년까지 1000개를 구축하여 지원할 예정임. 또한 산업부는 협력업체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다수의 공시기업에 제출(단일입력-다수대응)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함.

공시기준은 한국형 공시기준 (KSSB)으로 확정하고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다른 주제(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기업이 선택 공시 사항으로 발표할 수 있음. 이 KSSB 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지난 2월 제정되어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발표되었음.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공시 정보의 활용을 촉진 방안 논의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시 반영 예정

면책제도가 도입되지만 고의적인 그린 워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피할 수 없기때문에 유의

공시의무 적용 대상 기업들은 공시의무 이행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종속회사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 업체에 정보 요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방법이 부적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신뢰성 있는 ESG 정보의 수집·검증·관리를 뒷받침할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공시기준으로는 한국형 공시기준(KSSB)으로 확정하고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다른 주제(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기업이 선택 공시 사항으로 발표할 수 있음. 이 KSSB 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지난 2월 제정되어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발표되었음.

특히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공시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는데 먼저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여타 기관투자자도 수탁자 책임활동시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시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반영 되어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공개할 예정임. 또한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공급시 공시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특히 일정 기간 공시 정보에 대한 면책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고의적인 그린 워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물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고의성 논란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또한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그룹 전체의 정보를 공시해야 함. 이에 따라 지배회사가 연결기준 공시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종속회사의 민감한 지배구조 정보나 리스크 관리 영역에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요구하고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나아가 향후 Scope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결 종속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도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함. 따라서 공시의무 적용 대상 기업들은 공시의무 이행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종속회사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 업체에 정보 요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방법이 부적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이처럼 이번에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른 ESG 공시 정보는 연결 종속회사 및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의 정보까지 담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모으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우려가 많음. 또한, 법정 공시인 만큼 공시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신뢰성 있는 ESG 정보의 수집·검증·관리를 뒷받침할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시의 대상 연도인 2027년부터 ESG 정보 공시를 염두에 둔 기업의 Real-ESG 활동이 수행되기를 기대함.

ESG 이벤트 & 신영's View

웨이모·테슬라엔 화재, 안전단체엔 우려... 美 자율주행 규제완화 시동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무인 자율주행 전용 차량에 대한 수동 브레이크 페달 장착 의무를 폐지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개정안을 제안하며 자율주행 상용화 규제 완화에 착수
- 테슬라(사이버캡), 웨이모 등 페달 없는 로봇택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설계 및 상용화 문턱이 낮아져 환영하는 반면, 소비자·안전 단체는 도로 위 안전성 입증에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

Comments

- 그동안 주요 주마다 상이한 규제가 미국의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었음
- 아직 추가적으로 통일해야 할 규제가 많지만, 이러한 규제 통일 행보는 향후 제주시의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향

- Analyst 문용권

EU, 옴니버스 VI 잠정 합의...화학·화장품 규제 완화

- 유럽연합이 '옴니버스 VI' 법안을 통해 화학물질·화장품·비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정 CLP 규정 시행을 2030년으로 연기하는 등 기업의 행정 및 비용 부담 완화 조치에 잠정 합의
- 발암성·생식독성(CMR) 등 유해 물질의 퇴출 시한을 위험도와 대체재 유무에 따라 최장 36개월까지 차등 유예함으로써, 안전기준은 유지하되 화장품 업계의 규제 대응 및 준비기간을 보장

Comments

- EU는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
- 소비자 개인에게 친환경 및 비건 여부가 실제 구매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 요소로 형성되어 있음
-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기 용이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 조치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Analyst 이교석

EU 택소노미 개편 본격화...기업·금융사 공시 대폭 간소화

- 유럽 금융감독기구들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규정 간소화 제안 ← 옴니버스 패키지I
- 실효성 없는 '운영지출(OpEx) KPI',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전면 재편
- 금융 부문 중복 규제 폐지...은행·보험 지표 대폭 축소 및 현실화
- 금융·제조 겸업 기업 '가중평균 공시' 폐지... 지주회사(모기업)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단일 공시 체계를 적용 + 매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핵심 자회사의 지표만 간소화된 양식으로 제출

Comments

- EU 택소노미는 복잡한 지표 체계와 방대한 데이터 요구로 인해 실효성 논란 지속 → 공시부담 완화, 행정 편의 제고, 실효성 강화 등을 이유로 개선안이 제시됨
- 의무 공시 항목을 '연구개발(R&D)지출'로 제한, 기타 운영 비용은 'OpEX+'로 자율 공시, 매출 자본 비중 10% 미만 녹색활동은 운영지출 공시 면제해 부담 완화
- EBA, 자본시장 자문 및 중개 수수료 수익 중 택소노미 부합 비율을 측정하던 '수수료 KPI'와 트레이딩 자산 관련 '트레이딩북 KPI'를 폐지 또는 축소 제안
- 이외에도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라 EU의 ESG 공시도 완화(ESRS완화, VSME마련 등)

- Analyst 오광영

삼성중공업(010140.KS)

매수(TP 44,000원)

기술 고도화로 이끄는 동반성장

현재주가(7/10) 22,35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B+	A	B+	B+
Bloomberg	41.60	23.90	52.20	51.30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A line graph showing ESG grade changes from 2022 to 2025. The y-axis represents grades from D to S. The data points are: 2022 (B+), 2023 (A), 2024 (A), and 2025 (B+). The line connects these points, showing an overall upward trend with a slight dip in 2025.

연도	ESG 등급
2022년	B+
2023년	A
2024년	A
2025년	B+

Key Data

(기준일: 2026. 07 10)

시가총액(억원)	196,680
배당수익률(26F, %)	0.0
외국인지분율(%)	29.0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9인	20.8 %
국민연금공단	8.0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4.0	-21.7	-22.0	25.0
KOSPI 대비 상대수익률	-11.1	-38.6	-52.1	-46.8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 분	단위	2023	2024	구 분	단위	2023	2024	구 분	내 용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 ₂ eq	157.0	315.9	LTIFR	%	0.69	0.55	주주총회	1 주전 홈페이지 공고
폐기물 발생량	톤	45,577	75,057	기간제 근로자 비율	%	12.6	29.5	전자투표제	실시
환경 관련 투자비	억원	164.7	396.3	여성 근로자 비율	%	4.0	4.9	집중투표제	실시
환경경영 인증	ISO 14040, ISO 31000(리스크관리표준) 취득			사회 공헌지출	억원	11.4	14.9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배당 미실시
환경경영 조직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이사회 운영 실적	(2024년 기준) 7 회

ESG 관련 최신 활동

삼성중공업, 친환경 선박도 '실제 연비'로 승부. NAPA와 운항 검증 강화 (핀포인트뉴스, 26.07.08)	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제도 강화... 협력사 손실보전제 도입 (연합뉴스, 26.04.28)	삼성중공업,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 실증... '친환경 에너지원' (연합뉴스, 25.07.18)
- 핀란드 해운 소프트웨어 기업 NAPA와 연료 효율 설계, 운항 고도화 MOU 체결 - 풍력보조추진장치, 세이버링'과 NAPA의 향로 최적화 운항 시뮬레이션 기술 연계 - 실제 운항 데이터 기반으로 연료 절감 및 탄소 감축 효과를 설계 단계부터 검증하는 체계 구축 추진	-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 개최 - 작업중지권은 조선소 내 모든 근로자가 위험 발견 시 모바일 앱으로 신고 후 작업 중단하는 제도 - 불이익 금지,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협력사의 경우에도 원청이 손실을 보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	- HMM·파나시아 한국선급과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스템(OCCS) 실증 성공 - HMM 2,200TEU급 컨테이너선에 아민 흡수식 OCCS를 설치해 성능 검증 - 순도 99.9% 액화 CO₂를 포집해 친환경 메탄올 공정 원료로 활용

ESG history

연혁	내용
2011년	[G] 국내 주요 조선사 중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18년	[S] 조선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 취득
2019년	[E] 거제조선소 내 LNG 통합 실증설비 구축에 착수하며 친환경 LNG 밸류체인 R&D 기반 마련
2021년	[G]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전략 및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관리 감독 체계 마련
2022년	[E] ESG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로드맵 의결 및 탄소중립 조선소, ESG 전략 및 주요 사항 심의 체계 구축
2023년	[G] UN Global Compact 가입, KCGS ESG 평가에서 A등급 달성
2024년	[E] HMM, 파나시아, 한국선급과 공동으로 선박용 탄소포집, 액화, 저장시스템인 OCCS 실증 착수 [G]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
2025년	[S] 거제조선소 통합관제센터 구축, 안전 보안 관리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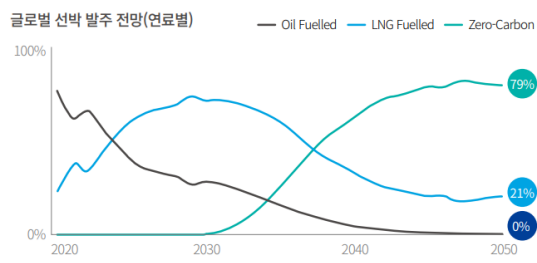
ESG 전략 - 선도적인 탈탄소 솔루션을 제공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조선소

동사는 주력제품의 탄소저감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조선소 자체의 탄소중립화를 노력하는 선도적인 기업이 되겠다는 전략을 수립.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주요 목표. 조선 산업은 조선소 밖에서 도와주는 전체 생태계가 유지되고 발전해야 산업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산업.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립하여 ESG 경영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선택과 집중의 삼성중공업, 고객의 선택지가 모이는 곳이 ESG 경영의 목적지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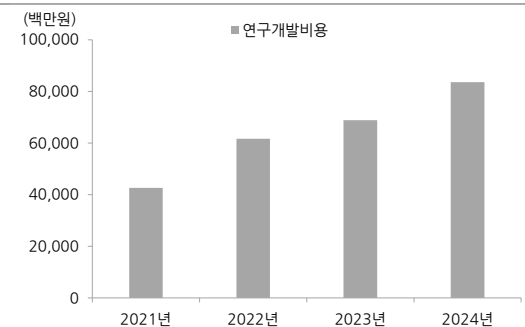
해운사와 선주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선박 운영 넷제로의 목표에는 조선산업이 강하게 묶여 있음. 운항스킬로 극복할 수 없는 탄소배출 저감의 한계는 선박의 교체로 이루어 내야 함. 삼성중공업은 기술을 바탕으로 조선사업장의 고도화(파이프 로봇랩 준공, 설계 자동화플랫폼 개발 및 도입)를 이루어냄과 동시에 친환경 선박 제조 기술 확보(암모니아 연료전지 기술 협약, FSMR 개발 인증)로 고객사의 다음 선택지 커버리지를 늘리는 중. 완벽한 다음 세대 선박기술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 기자재 업체와 친환경선박 기술을 공동개발하여 공동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다만 대세기술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삼성중공업의 그것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반성장의 경제적 해자를 넓혀놓을 필요 있음

도표 1. 글로벌 선박 발주 전망(연료별)



자료: 클락슨, 삼성중공업,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삼성중공업 안전보건경영 투자액



자료: 삼성중공업,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삼성중공업 환경경영 조직체계



자료: 삼성중공업,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iShares Energy Storage & Materials ETF

(IBAT)

Key Facts		Top Holdings (기준일: 2026.07.08)		NAV와 운용자산	
상장일	2024/03/19	BLOOM ENERGY CLASS A	8.59%	(USD)	(운용자산(우))
BM지수	STOXX Global Energy Storage and Materials (Net)	AIR PRODUCTS AND CHEMICALS	6.72%		
구성종목수	84	LAIR LIQUIDE SOCIETE ANONYME POUR	6.57%	50.00	8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73.40	MURATA MANUFACTURING	6.26%		
시장가격(USD)	40.83	BASF N	6.08%	40.00	6
NAV(USD)	40.78	TDK CORP	5.76%		
총보수(%)	0.47	SAMSUNG SDI LTD	3.97%	30.00	4
운용사	BlackRock	RESONAC HOLDINGS	3.68%		
		LINDE PLC	3.52%	20.00	2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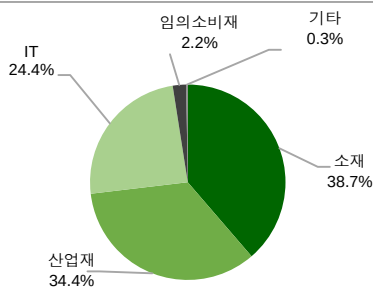
ETF 개요

iShares Energy Storage & Materials ETF (IBAT)는 2024년 3월 상장된 ETF로, 이 ETF는 배터리 기술, 수소, 연료 전지 및 기타 에너지 저장 솔루션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함. 이 지수는 매출 및 특허 노출도를 평가하여 관련 기업을 선정함. 먼저 매출 노출도 평가에서는 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격 기업의 매출원을 분석하고 해당 테마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을 선별함. 또한 특허 노출도 평가에서는 특수 지표를 사용하여 고품질 특허를 보유하고 해당 테마와 관련된 특허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선별함. 또한 ESG 기준을 적용하여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 활동에 관여하거나, 심각한 논란 등급을 받은 기업을 제외함. 최종 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성되며, 등급별, 기업별, 집중도 상한선이 적용됨. 지수는 매년 재구성되고 분기별로 리밸런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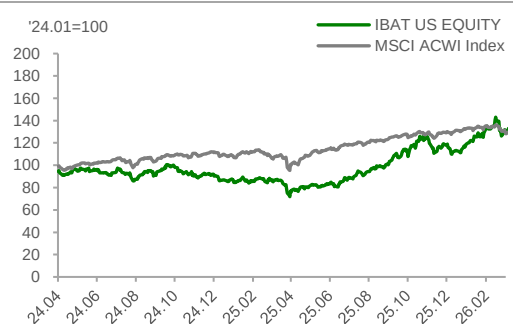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IBAT는 수소, 연료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저장 솔루션 관련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된 ETF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성상 소재(37%), 산업재(35%)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ETF임. 저탄소 전환 관련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투자자 중 ESG 특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

IBAT의 업종 구성 비중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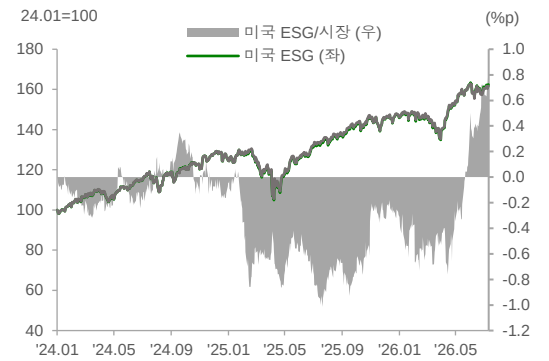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08 기준)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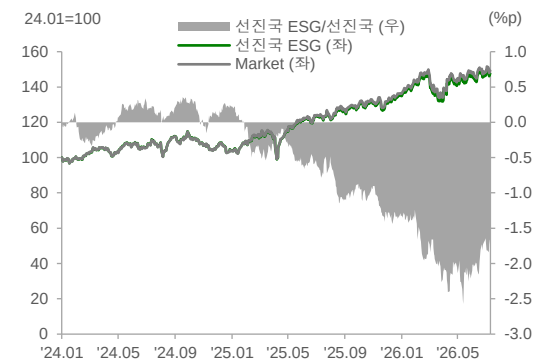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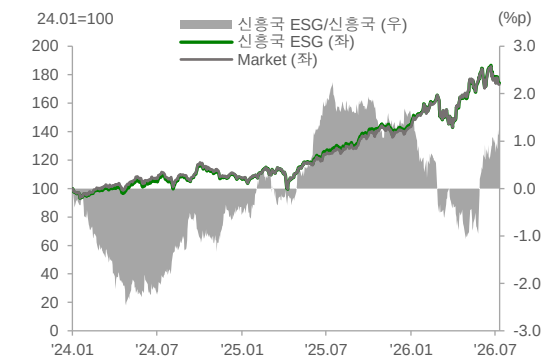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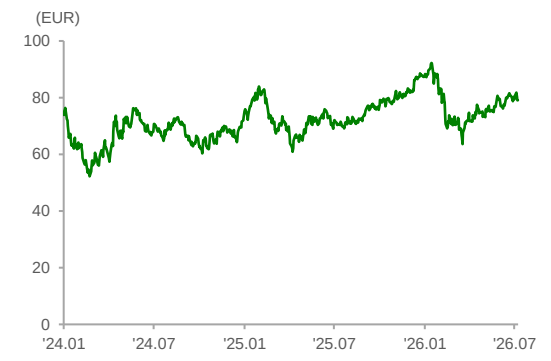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신중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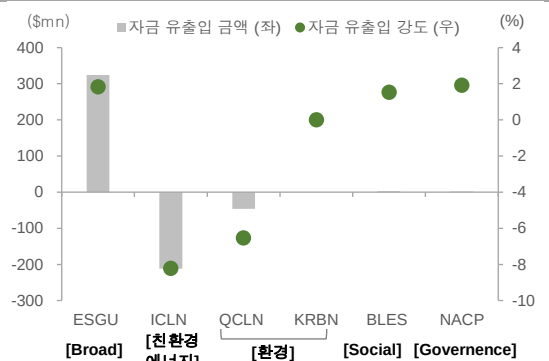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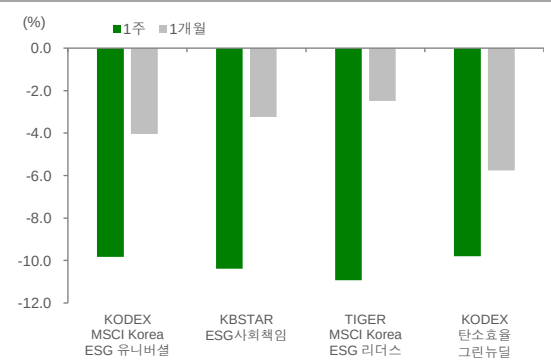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5,435	60	75.3%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7,769	13	14.0%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992	13	5.5%	13.4%
4	Social	5,960	5	4.7%	5.2%
5	Governance	453	3	0.4%	3.1%
6	기타	50	3	0.0%	3.1%
ESG 전체		126,660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7,759	0.0	3.1	10.9	8.0	324	661	1.8	3.7
	ESGV	13,271	1.0	4.2	13.1	8.3	-41	172	-0.3	1.3
	SUSL	1,142	-0.3	2.8	11.6	6.8	13	20	1.1	1.7
	NULV	2,145	0.1	1.6	8.3	9.3	28	-19	1.3	-0.9
	NUSC	1,272	-1.4	2.9	7.8	8.3	-63	-150	-5.0	-11.8
	ESGE	6,735	1.4	2.0	9.0	14.7	120	33	1.8	0.5
	ESGD	11,698	-0.7	2.2	1.9	4.5	175	-9	1.5	-0.1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EAGG	4,970	-0.4	-0.3	-1.3	-2.1	161	666	3.2	13.4
	ICLN	2,579	-3.2	-4.0	1.2	10.4	-212	431	-8.2	16.7
	TAN	1,588	-2.9	-7.6	-0.7	9.4	-88	520	-5.5	32.7
Environment	QCLN	710	-3.1	-3.9	10.4	13.4	-46	62	-6.5	8.7
	SPYX	2,744	0.0	3.1	10.1	7.1	6	26	0.2	0.9
	CRBN	1,132	0.0	2.5	7.7	6.7	0	48	0.0	4.3
	KRBN	138	0.1	1.6	10.4	-6.3	0	-32	0.0	-22.9
Social	BLES	157	-0.4	1.4	3.7	7.5	2	12	1.5	7.4
Governance	SHE	321	-0.4	1.4	14.9	13.0	0	-7	0.0	-2.2
	NACP	76	0.8	4.8	17.5	16.6	1	1	1.9	1.9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213	-9.8	-4.0	36.7	78.4	0.0	-29.8	0.0	-14.0
FOCUS ESG 리더스	74	-8.7	-9.3	4.2	30.3	0.0	-53.2	0.0	-71.9
KODEX 200ESG	2,012	-9.8	-3.2	42.0	89.0	213.9	725.2	10.6	36.0
KBStar ESG 사회책임	7,085	-10.4	-3.2	45.8	94.3	2,045.5	3,882.9	28.9	54.8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256	-9.9	-4.1	41.1	86.3	12.2	12.2	4.8	4.8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82	-10.9	-2.5	39.9	74.5	0.0	-50.7	0.0	-27.9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70	-9.8	-5.8	25.1	63.7	-29.2	-169.9	-6.2	-36.2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32	-9.7	-5.6	25.2	63.6	0.0	-18.5	0.0	-8.0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32	-9.8	-5.5	25.9	64.7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7.10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S (사회)

[\(26.06.29\)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법인도 조사...4조원 정유소 계약 비리 수사 확대-Impact-on](#)

4조 2910억원 규모 정유소 사업 비리 수사... 대우건설 현지법인 포함 수사 확대
계약 절차 위반 혐의 포착... 고위 관료 및 업체 관계자 50여 명 소환 조사

[\(26.07.06\)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美정부에 경고장...“메모리 가격 개입하면 부족 더 악화”-Impact-on](#)

메모리 부족, AI 서버에서 자동차·노트북으로 번졌다
SEMI “가격·물량 개입은 오히려 부족 키운다”
자동차 반도체 대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26.07.07\) 포스코, 안전보건 앞세워 ESG 리스크 관리 강화-ESG경제](#)

협력업체 관리 강화하고 AI·로봇 기반 안전기술 도입
공급망 리스크 점검 고도화...전기료·HyREX로 탈탄소 전환

G (지배구조)

[\(26.06.26\) HD건설기계·두산, 레바논 마을 파괴 논란...전쟁범죄 책임론 확산-Impact-on](#)

레바논 국경 마을 초토화 작전... 주요 중장비 기업 6곳의 제품 확인돼
“몰랐다 변명 안 통해”... 인권단체, 경영진 소송 가능성 경고

[\(26.06.26\) 프랑스 법원, “고객 배출도 기업 책임”...토탈에너지스에 스코프 3 반영 판결-Impact-on](#)

“원유 추출과 연소는 필연적 관계”...법원, ‘스코프 3’ 기업 책임 공식 인정
스코프3는 인정, 사업 중단은 제외...환경단체엔 ‘절반의 승리’
넷제로 철회했던 토탈... 글로벌 기후 소송 ‘2라운드’ 확산

[\(26.06.30\)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아직은 MOU...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성공-ESG경제](#)

“국가 균형발전” 강조한 정부주도 발표, 본계약은 기업 자율
균형발전 명분과 주주 가치, 충돌 아닌 정합성 입증에 관건
이사회결의·공시·대안비교... 절차를 통과해야 비로소 ‘투자’

[\(26.07.01\) ‘손실 나도 거액 배당’...5대 명품 브랜드 3년간 2.1兆 본사 송금-ESG경제](#)

루이비통 6000억 육박, BMW·벤츠·GM·르노도 1000억원 이상 배당
CEO스코어 조사...70개 배당기업 중 19곳은 순이익 초과 배당 감행
100대 외국계 기업, 3년간 총배당 18조원 달해...대부분 본사에 보내
쿠팡 1.4조원 외국계기업 최대...폭스바겐·재규어 순이익 100% 송금

[\(26.07.02\) 한화오션, HD현대 제치고 KDDX 선도함 수주...최종 선정 막전막후-ESG경제](#)

한화오션, KDDX 선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32년 해군 인도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이의신청 기각...보안 감점에 엇갈린 당락
7.8조원 규모 첫 국산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 본궤도...7000t급 6척 건조
국내 함정산업 경쟁 구도 재편 계기...2028년 후속함 5척 발주 전망

[\(26.07.03\) 홈플러스, 화생절차 폐지 일파만파...결국 파산·청산 수순 밟나-ESG경제](#)

법원 “2000억원 운영자금 확보 실패...회생계획 실행 불가 판단”
14일 내 즉시항고·자금조달 여부 변수...향후 약 2주가 ‘골든타임’
MBK·메리츠, 청산·회생가치 시각차...함의 없으면 청산 절차 개시
김병주의 MBK, 홈플러스사태로 직무정지되나...금감원 제재심 종결

[\(26.07.08\) ‘창립 100년’ 유한양행, 차기 수장 누구...첫 외부출신 대표 가능성은-ESG경제](#)

김영홍·이병만·유재천 유력 후보군 3파전 구도
외부에서 CEO 첫 영입 파격 선택도 배제할 수 없어
글로벌 빅파마 출신 영입시 네트워크 확대·신약개발 가속

정책 ESG 뉴스

ESG

[\(26.07.06\) ESG 공시로드맵 최강안 입수...2029년 3171개사 영향권-Impact-on](#)

10조원부터 시작, 5조원으로 확대...공시 영향권 대폭 확대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스코프3는 대상별 3년 유예
15개 수출업종 스코프3 가이드라인 만든다
국민연금도 공시정보 활용...ESG가 자본시장 평가로 연결

E (환경)

[\(26.06.26\) 캘리포니아, 첫 기업 기후공시 기한 11월로 연기...4000개 기업 준비시간 벌었다-Impact-on](#)

미국 대기업 4000곳 사정권...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 대상
소송권 등 잇따른 제도에 첫째 공급망 배출량은 제외

[\(26.06.29\) EU, 전력망 재원 축소·메탄규제 유예 '동시 브레이크'-Impact-on](#)

유럽 공동 재원' 후퇴...전력망 병목 해소할 '실탄' 줄어
메탄 규제 '3년 유예론', 독일도 가세

[\(26.06.29\) 스튜어디스 코드, 10년 만에 개정...기후 원칙은 미반영-Impact-on](#)

10년 만의 개정...자산군 확대·협력적 관여는 긍정 평가
개정안, 기후변화 언급 없어...평가체계 공개가 실효성 좌우

[\(26.07.08\) EU, 옴니버스 VI 잠정 합의...화학·화장품 규제 완화-Impact-on](#)

외부 포장에 상세 정보 있을 경우, 내부 포장은 디지털 라벨로 대체 가능
EU, 화장품 부문 위험 물질 유형에 따라 퇴출 유예기간 차등 적용

S (사회)

[\(26.06.30\) 청년 중소기업 취업 유도, 기업 보조보다 직접 지원 강화해야-ESG경제](#)

대기업 일자리 12%대 정체...청년 진입도 둔화
대·중소기업 월 임금 격차 365만 원까지 확대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정책 지속성 필요”

[\(26.07.01\) EU 강제노동금지법 가이드라인 공개...기업 실사 의무 없지만 최종 책임 묻는다-Impact-on](#)

기업에 실사의무 부과하지 않는 대신 '최종 책임' 엄격히 부과
적발 시 회수·폐기 명령...매출액 대비 최대 4% 과징금 가능

G (지배구조)

[\(26.07.02\) 스페인·인도, 시멘트·철강 탈탄소에 수조원 투입...CCUS 자원 확대-Impact-on](#)

스페인, 시멘트 업계에 3억1900만유로 투입... 탄소포집·수소 전환 가속
인도, 1970억루피 중공업 CCUS 도입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도해 넷제로 달성"

[\(26.07.03\) EU ETS 개편 앞두고 철강업계 내홍...무상할당 폐지 일정 '유지' vs '속도조절' -Impact-on](#)

전통적 철강사 “탈탄소 기반 먼저...ETS 비용 상승 멈춰야”
“무상할당이 투자 유인 약화”...현행 유지 요구도 확산

[\(26.07.07\) 이탈리아 에니, 칠레 리튬에 3400억원 투자...석유 메이저 '배터리 광물' 진출 확산-Impact-on](#)

DLE 기술 앞세운 10억달러 규모 프로젝트...美 국책은행도 지원
염수·저류층 운영 경험 무기로 리튬 시장 뛰어드는 오일 메이저들

일반 ESG 뉴스

ESG

[\(26.06.29\) 국내 'ESG' 펀드 9조원대로 커졌지만...규제공백에 그린워싱 '만연'-ESG경제](#)

84개 상품서 고탄소 기업 보유 사실 확인
공시 기준 시행에도 포트폴리오 검증 한계
해외는 투자비율·배제 기준으로 규제 강화

[\(26.07.01\) 국민연금 책임투자 입법, 'ESG 고려 정도 공개로 확대해야'-ESG경제](#)

"현재 입법 논의 ESG 요소 고려 의무화에 초점"

E (환경)

[\(26.06.26\) ELV 규제의 숨은 변수 '보험사'...전손 판정이 차량 처리 경로 결정-Impact-on](#)

보험사가 차량의 다음 경로를 결정한다
전기차 시대, 배터리 평가가 전손 여부를 가른다
추적성 확보가 순환경제의 마지막 과제

[\(26.06.30\) 전력난 부르는 인허가 장벽...美재생에너지 190조 투자 '빨간불'-Impact-on](#)

美 재생에너지 92GW, 연방 심사 강화에 발목
태양광·풍력 단독계약 한계...BESS 결합이 새 표준으로

[\(26.07.06\) 폭염에 흔들리는 유럽...기후 적응이 경제 생존 과제로 떠올라-ESG경제](#)

노동생산성·공급망 타격...폭염, 유럽 경제의 새 하방 리스크
탄소 감축은 앞섰지만 기후 적응 투자는 여전히 부족
EU "기후변화 적응 서둘러야"...폭염 피해 갈수록 확대

[\(26.07.07\) SBTi 기후리더 되려면 매년 얼마나 줄까-Impact-on](#)

2050년 선언보다 5년 단위 이행으로
리온티노 34조원, 포드 19조원...기후 리더십의 가격표
생색내기용 내부 탄소가격제 통하지 않아

[\(26.07.08\) AI 데이터센터 전력난, 美 제조업 덮쳤다...러스트벨트 공장 전기료 90% 급등-Impact-on](#)

PJM 용량요금 1000% 폭등...AI 전력 수요, 공장 원가로 전이
AI 육성과 제조업 육성의 충돌...공장들도 생존 전략 모색

G (지배구조)

[\(26.06.26\) '속빈 강장'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갖추려면... '5%룰'도 손봐야-ESG경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관련 논평
"협력적 주주활동 명문화 긍정적...실효성은 5%룰에 달려"
이행점검 이해충돌 문제 발생...자율협의·독립기구 검토해야

[\(26.06.29\) 기후위험, 재무제표 주석까지 들어온다...회계기준원, 공시 사례 공개-Impact-on](#)

기후위험 공시 6가지 사례...손상·충당부채·신용위험
ESG팀·재무팀 따르는 한계...기업들 "1~2년 준비기간 필요"

[\(26.07.02\) 주주단체 '호남 반도체 투자 등 주주 동의 구하라'-ESG경제](#)

주주총회 및 이사회 동의 구하는 투명한 절차 요구
노조도 노사정 협의회 통한 종합 논의 필요성 제기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기준일 (20260630)	매수 : 90.45%	중립 : 9.55%	매도 : 0%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삼성중공업	-	-	-	-	-	-	-	-

